

“월출산 풍경·밤하늘 별 보며 영암서 추억 쌓아요”

‘영암에서 살아볼래’ 광주·목포 등 도시 5가족 입주 축제·특화 프로그램 참여 등 영암살이 즐거움 ‘만끽’

영암군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에서 살아볼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나주·무안·목포·광주에서 농촌 마을로 입주한 5가족의 한 달 영암살이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 가족들이 영암살이를 하고 있는 곳은 군서면 모정마을에 조성된 단독주택 ‘영암살래’다.

이 주택은 영암군이 ‘영암에서 살아볼래’ 사업으로 건립해 지난달 2일 개장식을 마친 곳이다.

도시민 가족이 자기 거주지와 영암 농촌 마을, 두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주택을 임대해 주고, 다양한 지역 공동체·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해 지역 정착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을 영암군은 영암살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 1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가족은 매일 살기, 주말 살기 등 각 가정의 여건에 맞춰 열흘 남짓의 영암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영암의 농업·환경·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영암군에 이주하기 전에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다 등으로 영암살이를 신청한 가족들이다.

이 가족들은 영암살래에 거주하며 입주자 간담회에 참여하고, 월출산도예공방 그릇 만들기 체험에도 나서 영암의 맛과 정을 하나하나 느껴가고 있다.

조선업 분야 연구원인 안창준씨(43)가



영암군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에서 살아볼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나주·무안·목포·광주에서 농촌 마을로 입주한 1기 가족들의 모습.

죽은 무안 아파트 생활을 잠시 접고 영암살래에 입주했다.

10년 동안 무안 집과 영암 직장을 오가던 안씨가 영암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가족

에게 영암살이를 제안했고, 프리랜서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동의해 영암살래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안씨는 가끔 도시 생활의 편리함이 떠오

르기도 하지만 가족 모두가 영암살이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가 마당이 있는 이곳을 좋아한다. 월출산 풍경도 멋있지만

신안,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섬 교통 불편 해소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 건조…노후 여객선 교체

신안군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노후 여객선 교체를 통해 섬 주민의 육상 왕래 불편 해소에 나선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여객선 매입·건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

한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이 제도를 활용해 도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후 여객선 교체에 나선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11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50억

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객선 매입과 건조를 위한 지정기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모금 결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군에서 현재 운항 중인 선박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할 새 선박을 건조하는 예산으로 전액 활용된다.

또 군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을 건조될 선박에 명기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소중한 뜻을 기릴 방침이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지정기부는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도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연대와 기부자의 마음이 될 것이다”며 “섬 주민들의 발이 돼 줄 ‘희망의 배’ 마련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 이번 지정기부 추진은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가족과 함께 목재 놀이터 즐겨요” 영암군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전남도 목재누리 페스티벌’이 지난 9일 영암군목재문화체험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달빛 아래, 목재로 피어나는 영암의 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 중 목재 체험 부스에 3500여명이 방문해 민백 방향제, 목재 액자, 나무도마, 나무자동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사진제공=영암군

목포,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특급 이벤트

답례품·네이버페이 등 10만원 기부 시 최대 18만원 혜택

목포시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 시기를 맞아 올해 마지막으로 ‘연말엔 목포愛 ~ 고향사랑기부제 특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참여된다. 이벤트는 1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총 810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먼저 선착순 7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5000원권이 지급되고, 이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1만원권, 10명에게는 5만원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다만 보다 많은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경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경품으로 제공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은 간편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경품으로, 기부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 답례품, 여기에 최대 5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8만원 규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들이 함께 총 600g 설탕 시 홍어에 추가 증정, 먹갈치 선택 시 고등어 1마리 추가 등 증정(증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해남, ‘빈집 없는 깨끗한 농촌 공간’ 속도

빈집정비사업비 7억 확보…전수조사 기반 체계적 철거

해남군이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며 ‘빈집 없는 깨끗한 농촌 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235동의 빈집을 발굴했다. 등급별로는 1등급 128동(10.4%), 2등급 469동(38%), 3등급 638동(51.6%)으로, 이를 바탕으로 빈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비 우선순위와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96동을 철거한데 이어 2025년에는 146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매칭 방식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 전년 대비 60% 이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위험 건축물을 철거해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미관을 개선하는 생활안전형 정비사업으로, 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빈집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은 단 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마을 유흥공간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농촌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최근 함평엑스포초공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17만7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국향대전’ 전국 대표 가을꽃 자리매김

17만7000명 방문…‘마법의 국향랜드’ 등 인기

함평군이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7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전국 대표 가을꽃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17만7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축제의 브랜드 가치와 흥행력을 입증한 결과다.

이번 축제는 회전목마와 대관람차 등 대형 국화 조형물, 국화 분재, 나라의 가을정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브라스밴드 거리공연, 미술·버

블소 등 거리공연과 ‘국향 끼스타를 찾아라’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난해보다 2억원 가량 높은 9억9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군은 국향대전 종료 다음날인 10일부터 27일까지 엑스포공원 정비와 ‘함평 겨울빛축제’ 준비를 위해 임시 휴원에 들어간다.

‘함평 겨울빛축제’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45일간 열리며, 축제 범위를 읍 시가지까지 확대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야간 관광형 축제로 개 최될 예정이다.

함평=최윤희 기자 6263739@

무안, 공공체육시설 확충 공모 확정

실내체육관 편의시설 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 국비 포함 총사업비 3억원(기금 70%, 군비 30%) 규모로 실내체육관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관람공간과 동행자 좌석을 설

치할 수 있게 됐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2009년 준공 이후 각종 행사와 체육경기, 전시출연 등으로 방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2층 관람석으로 이동 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